

소리의 소설: 삼켜진 초록 에필로그

Novel of Sound: Swallowed Green Epilogue

오자현 개인전

2023. 10. 04. - 10. 22.

온수공간 1층

기록하기, 또는 기억하기

송윤지

우리는 일상의 많은 순간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들 중 상당수를 SNS에 올린다. 게시물로 공유된 일상의 파편들은 하나 둘 쌓여 타임라인을 만든다. 오랜 시간 축적된 타임라인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 관심사, 가치관, 신념까지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SNS에 기록된 나의 삶은 '진짜 나'와 얼마나 일치할까? 만약 'SNS에 기록된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일그러진 틈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오자현은 이야기를 짓는 작가다. 그는 「그린골드 작업실」(2020)을 시작으로 「삼켜진 초록」(2022), 이번 전시에 발표하는 「아보카도 왕자」(2023)까지 총 세 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모두 '지은'이라는 이름이다. '지은'은 「그린골드 작업실」에서는 미대생 신분으로 아보카도 도시락을 팔고, 「삼켜진 초록」에서는 미대 졸업 후 원룸살이를 하면서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아보카도 왕자」에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캐릭터 디자인 외주를 받는다. 세 명의 '지은'은 모두 미술을 전공했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에 있어서는 모종의 이유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편의 소설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별개의 이야기고 세 명의 '지은' 역시 완전히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점점들로 인해 웬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는 아마도 '지은'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안다.

신작 「아보카도 왕자」속 '지은'은 자신의 SNS에 일주일 간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 위크 캠페인을 홍보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곤 한다. 이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의 작은 노력이다. 하지만 '지은'은 어릴 때부터 '아보카도 왕자'라는 캐릭터를 그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베이커리 업체로부터 캐릭터 외주 의뢰를 받게 된다. 아보카도를 트렌디한 고급재료로 여기고 '아보카도를 먹는 나'에 취해있던 엄마와 아보카도 재배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된 나, SNS에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나'를 전시하면서 고취감을 느끼던 나와 거액의 돈에 굴복해 캐릭터를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보카도 소비를 독려하게 된 나. '지은'을 둘러싼 모순들은 여러 레이어로 중첩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자현의 소설은 완전한 픽션이라기엔 너무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그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촘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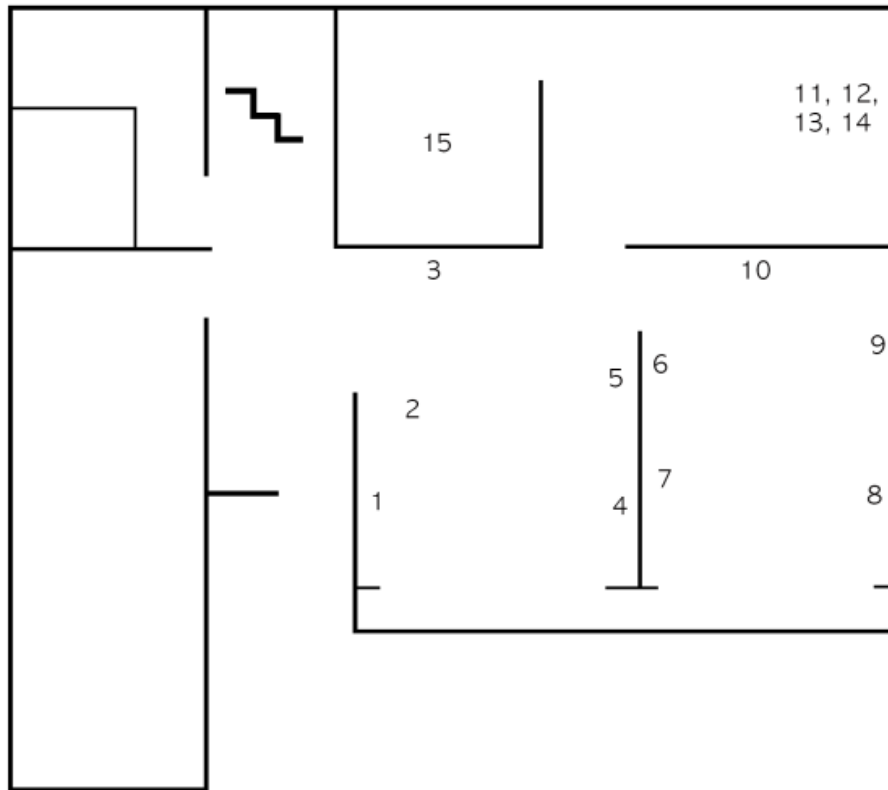
레이어를 갖는 것은 그가 일상에서 수집한 재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자현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과 영상을 활용해 이야기를 한층 실제의 영역에 가깝게 확장시킨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나 영상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1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본 초록의 풍경을 찍고 그린다. 본래 풍경화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화롭거나 송고한 분위기의 풍경을 포착하거나, 아름다움을 위해 임의로 구도를 편집해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오자현의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념적 풍경화와 달리 위화감이 든다. 아름답게 연출된 풍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풍경화는 보는 이의 심미안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마치 블랙박스나 CCTV에 녹화된 듯한 장면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이거나, 식물들이 시들어있어 계절감마저 삭제된 채다. 그는 영상 속 장면을 그대로 회화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 장면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건조한 태도로 회화를 '수행'하면서도 오자현은 반드시 사진이 아닌 회화로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이유에 관해 그는 "사진과 회화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한다. 사진은 1초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르고 간편한 매체지만, 회화는 지리한 시간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인공의 매체다. 이 시간의 격차는 오자현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전시에서 오자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시간의 격차를 반영했는데, 사운드의 사용이 그것이다. 그는 음악감독인 임자연과의 협업으로 서울숲, 석촌호수,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 시내 및 근교의 녹지들과 전북 완주의 수만리에서 자연의 소리들을 수집했다. 새가 지저귀거나 벌레가 우는 소리,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부는 소리 등은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아노 선율이 깔리면서 순식간에 음산한 공포영화의 사운드트랙처럼 되어 버린다.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시점과 녹음된 트랙 위에 피아노 연주가 없어진 시점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청자에게 사운드가 전달될 때에는 녹음과정에서의 시간차가 삭제되고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재생된다. 또한 이 사운드는 음원사이트에 발매됐는데, 이를 통해 전시 이후에도 앨범을 들을 수 있어 재생 시점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 들은 사운드와 전시 이후 따로 듣는 사운드는 분명 다른 감상을 낳을 것이다.

특정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접하는 시각적 정보와 소리는 총체적으로 우리 뇌에 기록된다. 우리는 그 기록을 '기억'이라고 부른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찍거나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전부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억을 보완할 수 있는 매체다. 오자현이 이처럼 여러 기록매체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가 '기억하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알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애도이자 관심으로서 사라지는 순간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SNS를 구성하는 것 역시 글, 사진, 영상 등의 기록매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 또한 사라지는 '나'를 잃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이 아닐까. 비록 SNS 속의 나와 지금 여기서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수많은 모순과 시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

이 전시는 "삼켜진 초록 에필로그"라는 부제처럼 오자현의 아보카도 3부작을 마무리하는 아카이브의 성격을 갖는다. 전시는 언제나 한시적이고, 작품들은 전시기간이 끝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오자현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전시의 기록은 또 하나의 기억이 되어 오자현이 펼칠 다음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될 것이다.



1. 아보카도 왕자, 2023, 트레이싱지 인쇄, 가변크기
삼켜진 초록, 2022, 트레이싱지 인쇄, 가변크기
2. 소리의 소설, 2023, 트레이싱지, 우레탄 줄, 가변크기
3. 밤 산책, 2023, oil on canvas, 90.9x90.9cm
4. 초역세권, 2023, oil on wood panel, 162.1x112.1cm
5. 평소와 같은 저녁, 2023, oil on canvas, 33.4x24.3cm
6. 아보카도, 2021, oil on canvas, 33x33cm
7. 버스 정류장 앞, 2021, oil on canvas, 162.1x112.1cm
8. 아보카도 비닐하우스, 2023, oil on canvas, 162.1x130cm
9. 밤풍경, 2022, oil on canvas, 90.9x72.7cm
10. 먹을 수 없는 색, 2023, oil on canvas, 260.2x162.1cm
11. 소리의 소설, 2023, digital single channel video, 3min 3sec
12. 삼켜진 초록, 2022, digital single channel video, 5min 49sec
13. 그린골드 작업실, 2021, digital single channel video, 4min 10sec
14. 도카보아, 2021, digital single channel video, 7min 3sec
15. 앨범 <소리의 소설>, 사운드 포레스트, 2023,09,26 발매, 7트랙 수록